

공무원노동자의 미래 양경수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

공무원도 노동자이고 국민입니다

- 전체 노동자, 제정당,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무원노조법 개정, 공무원 정치자유 보장
- 단체협약 범위 확대 이행 강제

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

- 악성민원 처벌 강화 법안 마련
- 여러 노동단체와 사업장내 갈등 조정 중재

공무원의 노동조건은 모든 노동자의 기준입니다

- 실질임금 인상, 청년공무원 생존임금 보장
- 시간외수당, 선거사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
-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
-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장

사회공공성은 공무원 수로 결정됩니다

- 윤석열 정부 공무원 감축 반대 투쟁
- 안전·재난·소방·복지 공무원 증원

앞도하라! 민주노총

1

